

김민경 “운동뚱’ 덕분에 10kg 빠져…앞으로 연기도전”

“올 초와 비교하면 한 10kg 빠졌어요. 요즘 스케줄이 바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오늘부터 운동뚱’ 덕분이죠. 언제까지 같진 모르겠어요. 하하.”

데뷔 12년 만에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민경은 최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살이 많이 빠졌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김민경은 지난 2008년 KBS 23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개그콘서트’를 통해 안방극장에 눈도장을 찍었으며 2015년 KBS 연예대상에서 코미디 부문 여자 최우수상을 받았다. 코미디TV ‘맛있는 녀석들’ 통해 전성기를 맞았으며 최근 ‘오늘부터 운동뚱’, ‘나는 살아있다’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나는 살아있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힘든 일이 더 많다. 저는 고소공포증, 물공포증, 폐쇄공포증 등 공포증이 많은데 제가 어떻게 이겨나갈지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자신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각종 공포증 관련 상황을 다 집어넣은 것 아니냐고 제작진을 추궁하기도 했다. 정말 도망치고 싶었다. 그는 “다른 멤버들 얘기를 들으니 다들 운동 잘하는 친구들인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두려웠다”며 “이 프로그램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정말 안하고 싶다고 감독한테 매달렸다”고 했다.

하지만 이전 ‘감사한 프로그램’이 됐다. “언제 내가 이런 재난을 경험해보겠다.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다. 지금같은 시기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다. 그래도 ‘시즌2’는 사양이다. ‘감독이 농담처럼 ‘시즌2’ 할거지?’라고 했는데 ‘아니오’라고 바로 대답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물’이다. 그는 “물 공포증이 워낙 심한데 물 위에서 비닐봉지에 의존해 물에 떠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며 “그런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기억했다.

코미디 TV ‘맛있는 녀석들’ 통해 전성기 맞아 최근 ‘오늘부터 운동뚱’·‘나는 살아있다’ 등 활동 “데뷔 12년 만에 가장 바빠…인기 실감나”

“그 공포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모른다. 방송을 보고 ‘왜 저렇게 오버하나’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난생 처음으로 숨을 못 쉴 만큼 큰 공포를 느꼈다.”

동료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 그는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같이 재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썼다”며 “모두가 다 옆에서 도와줘서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구명조끼에 대한 믿음도 생겼다. “예전엔 구명조끼를 믿지 못했다. 구명조끼가 나를 감당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방송 이후로 구명조끼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김성령, 이시영, 오정연, 김지연, (여자)아이들 우기 모두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지만 이전 가장 믿음이 가는 동료 사이가 됐다.

그는 “정신적으로 성령 언니에게 의지를 많이 했고, 신체적으로는 시영이가 가장 좋은 예이스였다”며 “정연이도 늘 의욕이 넘쳤고, 지연이는 운동선수 답게 체력이 좋았다. 막내 우기도 저를 이끌어줬다. 내가 제일 허담”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오늘부터 운동뚱’을 통해 야구에도 도전, ‘양신’ 양준혁과 인연도 맺었다. 그는 “처음 양준혁을 봤을 땐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칠 정도로 수줍어했다”며 “그런데 운동을 하다보니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준혁아~’라고 막에 받혀서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 말했다. 여러 운동 경험 후 가장 매력을 느낀 건 필

라테스다. “할 때는 잔근육을 하나하나 써야 해서 제일 힘든 운동일 수 있는데 몸에는 제일 필요한 운동인 것 같다. 지금 방송에서 하고 있는 운동들을 그만두게 되면 진지하게 내 몸을 위해 필라테스를 해볼까 한다.”

운동의 목적은 ‘음식’이다. 그는 “음식을 더 맛있게, 건강하게 많이 먹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며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라 시청자 분들도 좋아해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음식과 운동에 ‘공통점’이 있다. “음식을 처음 먹을 때 맛 없는 곳에서 먹으면 그 뒤로는 안 먹지 않나. 운동도 똑같다. 너무 좋은 감독들을 만나 너무 훌륭하게 가르침을 받으니 소화도 잘 할 수 있고, 운동의 매력도 느낄 수 있다.”

지금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 준 ‘맛있는 녀석들’ 제작진에 대한 믿음이 크다. 그는 “정말 모든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다”며 “6년간 봐왔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안다”고 신뢰를 드러냈다.

‘근수저’, ‘민경장군’, ‘운동뚱’ 등 애칭 부자다. 그는 “모든 별명이 다 좋지만 그래도 ‘민경장군’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다”며 “유튜브 채널 이름도 ‘민경장군’이다. 정형돈이 만들어준 이름”이라고 전했다.

“장군스럽게 살다보니 운동도 하게 되고, 이런저런 자격을 갖춰가게끔 만들어지는 것 같다. 제가 지금의 제가 될 수 있게 해준 것 같은 느낌이다.”



인기를 실감한 건 MBC TV 예능물 ‘나 혼자 산다’ 출연 이후다. 그는 “나 혼자 산다’ 출연 이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똥’, ‘대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다”며 “박세리 언니도 만나고, 좋게 봐준 사람들이 많아서 감사하다”고 했다.

실제 성격은 ‘소녀소녀’한 편이라고 웃었다. “나를 오래 봐 왔던 친구들은 방송을 보고 놀란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들어주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이쪽에 오래 있다보니 성격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는 “장군”이라고 하니가 좀 더 곁길해지는 것도 있고 걸크러쉬 느낌도 내게 된다”며 “사실 눈치도 많이 보고 소심한 편이지만, 지는 걸 싫어해서 힘을 더 내게 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으로는 ‘연기’를 꼽았다. “어릴 때 꿈이 연기자였다. 카메오를 제외하고는 ‘천일야사’를 통해 긴 호흡의 연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매력적이다. 되든 안되든 도전해보고 싶다.”

1981년생, 내년이면 어느덧 ‘마흔’인 김민경은 ‘모태소녀’라고 했다.

30대에서 40대로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없다. 그는 “사주 포함 주변에서 ‘마흔에 타진다’, ‘마흔부터 잘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오�히러 올해 39세가 됐을 때 내년에는 내가 좀 더 행복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기대했다.

개그우먼 답게 인터뷰 마지막 웃음을 선사하는 긍정의 메시지를 남겼다.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든데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힘든 게 덜어지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생각이 나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니 다들 긍정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뉴시스

샤이니 민호 “건강하게 전역 행복”…키 “우리가 돌아왔다”

팬 커뮤니티에 자필 손편지·음성 메시지 게재해 팬들에게 인사



해병대 군 복무를 마친 그룹 ‘샤이니’ 민호가 전역 소감을 밝혔다. 민호는 지난 15일 공식 팬 커뮤니티 리슨에 자필 손편지를 통해 “필승! 병장 최민호 전역

을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에게도 이날이 왔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 설레고 행복하다”며 “민고 기다려준

우리 샤이니 월드, 이제 최민호와 함께 어디든 달려갑시다! 사랑해”라고 적었다.

그는 음성 메시지도 게재해 팬들에게 인사를 했다. 민호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군 생활을 무사히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설레고 이런 감정은 처음인 것 같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시간이 왔다는 게 제일 설레고 신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 동안에도 잊지 않고 응원 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더욱더 행복하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희망했다.

아울러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리고 사랑한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제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민호는 이날 해병대 군 복무를 끝마쳤다. 그는 호국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말년 휴가를 반납하는 등 모병적인 병영 생활을 선보였다. 샤이니 키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군 복을 입은 민호와 함께 완전체로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며 “우리가 돌아왔다(We’re back!)”고 적어 향후 활동을 예고했다.

E 채널 새 예능 ‘라떼부모’, 이상봉·변정수·김미정 출연

E 채널 새 예능 프로그램 ‘라떼부모’의 메인 포스터가 나왔다. ‘라떼부모’ 제작진은 16일 프로그램의 중심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유행어 ‘라떼는 말이야~’를 주제로 세상 모든 부모와 자녀가 공감할 리얼 관찰형 프로그램 ‘라떼부모’의 포스터를 선보였다. 이날 공개된 포스터는 ‘라떼 이즈 홀스 (Latte is horse)’로 번역되기도 하며 다양하게 변형되는 말 “나 내는 말이야”를 형식화했다. 포스터 한 가운데에 양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 ‘말(horse)’ 캐릭터가 커피 잔 안에 몸을 담고 앉아, 라떼 한 잔을 들고 “라떼는 말이야”라고 말하고 있다. ‘말’ 캐릭터는 부모와 같은 일을 하는 자녀

들을 둔 동종업계 선배인 ‘라떼부모’의 부모 출연진 모두를 가리킨다. 포스터의 주 색상은 모든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노란빛으로 선택됐다. ‘라떼부모’의 1세대 라떼로는 디자이너 이상봉, 모델 겸 방송인 변정수, 1980년대 야구계 스타 플레이어 이순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여자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미정이 출연한다. 부모의 뒤를 잇는 2세대들은 이들의 자녀인 디자이너 이청정, 모델 유채원,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소속 이상곤, 용인대 유도경기 지도학과 학생인 김유철이다. ‘라떼부모’는 12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

이상봉·이청정 / 변정수·유채원 / 이순철·이상곤 / 김미정·김유철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

씨엘, ‘알파’ 발매…11월 30일→내년 초로 연기

가수 씨엘(CL)이 오는 30일 예정한 새 앨범 ‘알파(ALPHA)’ 발매를 미뤘다.

씨엘은 16일 소속사를 통해 “저는 지금 미국에서 다음 프로젝트인 ‘알파’ 앨범과 2021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를 하다 보니 좋은 기회와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어서 많은 고민 끝에 날짜를 바꾸게 됐다”면서 “저의 (솔로) 첫 피치킵 앨범이고 의미 있는 앨범이다 보니 계속해서 더 좋은 것들을 고민하게 됐고, 저의 팀, 여러 관계자분들과 상의 끝에 내년 초로 발표일을 조금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씨엘은 지난달 29일 더블 싱글 ‘화(HWA)’와 ‘파이브스타(5STAR)’를 발표했다. ‘화’는 11월14일자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3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씨엘은 지난 2009년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2NE1의 리더로 데뷔했다. 이 팀은 개성 강한 그룹으로 ‘내가 제일 잘 나가’



‘아이 돈트 케어’ 등의 히트곡을 내며 톱 톱 반열에 올랐다.

월드투어를 두 번이나 돌았으며 2014년 앨범 ‘크리시’로 미국 빌보드의 메인 차트 ‘빌보드 200’에서 6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6년 11월 해체를 결정했다. 2017년 1월 자신들의 마지막곡인 ‘굿바이(GOOD BYE)’ 음원을 냈다.

에이티즈 민기, 활동 잠정중단…“심리적 불안”

당분간 7인 체제

8인조 보이그룹 ‘에이티즈’ 멤버 민기가 ‘심리적 불안’을 이유로 당분간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소속사 KQ엔터테인먼트는 15일 “최근 민기가 이전에 없던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해 당사와 관련 증상을 상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원에서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결과,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권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KQ는 “당사는 민기 군을 포함한 에이티즈 멤버들과의 충분한 논의 끝에 민기 군의 건강 회복과 치료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민기 군은 에이티즈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됐다”고 전했다.

에이티즈는 당분간 7인 체제로 활동한다. 향후 민기의 스케줄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의 소견을 비롯한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KQ는 “민기는 에이티즈 활동 중단 기간 동안 별도의 스케줄 없이 건강 회복에 집중할 예정이며 당사 역시 민기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018년 10월 24일 데뷔한 에이티즈는 홍중, 성화, 윤호, 여상, 산, 민기, 우영, 종호 8명의 멤버로 구성됐다.

데뷔 초창기 때부터 ‘퍼포먼스돌’이라 불렸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인지도를 쌓기 시작한 한류그룹이다.